전통사찰 65% 산불 위험 '높음'…"광역소화시설 필요"

조계종 문화부 전문가 좌담회
문화유산 사찰 재난 시설 마련
소화전만으로 산불 진화 불가능
김동현 "30배 이상 시설 필요"
수막 형성 광역시설 설치 제안
스님 및 전문가들 토론 이어 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8개 전통사찰의 산불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65%에서 '높음' 이상의 위험도가 나타났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찰이 보유한 소화시설만으로는 사실상 진화가 불가한 만큼 광역소화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는 12월 9일 서울 광화문 포룸에서 '문화유산 보유사찰 재난 대응시설 마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의성 산불로 고운사가 전소되는 등 전통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재난 대응시설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조발제자로 참여한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사찰의 화재 대응 시설 현황 및 대응 방안 고찰'을 통해 현재 한국 전통사찰에 필요한 방재 시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이 증가 추세임을 짚은 김 교수는 "올해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 산불 확산 거리가 78km에 달한 정도로 방대했는데, 중부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안까지 번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의성 고운사는 3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화마의 피해를 입었고, 이는 의성 산불 발화 시점과는 약 2일 간의 차이가 난다.

김 교수는 "고운사에서 대응할 시간은 있었고 대응도 했지만, 넘어온 불은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사찰 소화시설은 △옥외소화전 △방수총 △호스릴 △소화기 등으로 대부분 초기화재나 특정 전각의 화재 진압용이다. 발화점이 다양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0배가 많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12월 9일 서울 광화문 포룸에서 '문화유산 보유사찰 재난 대응시설 마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좌담회 참가자 기념촬영 모습.

더불어 김 교수는 국가유산청 연구사업을 통해 조사된 전통사찰 산불 위험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98개 전통사찰의 산불 위험도는 매우 높음(7.5~10) 19곳, 높음(5~7.5) 45곳, 보통(3~5) 29곳, 낮음(1~3) 5곳으로 확인됐다. 조사 사찰 중 65%가 위험도 '높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미리 물을 뿌려 산불로부터 문화유산과 숲을 지킬 수 있는 '산불 방지 스프링클러'와 광역산불소화시설의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물을 받아 놓은 종이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듯, 인근 산불 발생시 사전 살수를 해 놓으면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산림청 주도로 휴양림 위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데 사찰의 신청은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광역산불소화설비(아쿠아돔)는 사찰 경내 권역별로 수막(水幕) 설비를 설치해 산불 발생 시 유기적으로 전각을 지킬 수 있게 방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스페인 발렌시아주 토렌트시 소재 숲에 설치돼 수목림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개소의 방재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방염재료로 부각된 방염포는 시중에 저성능 방염포가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완벽한 보호가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 교수 연구팀이 고성능 방염포를 개발했으나 무게로 인해 설치가 용의치 않아 보완이 필요함을 밝히며 이를 해결한 장치 구조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역사 속에서 사찰이 왕실의 사고를 수호하고 왕실 산림과 능침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음에 주목해 "현재의 사찰림이 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만큼 국가유산 차원에서 사찰과 사찰림이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인 이왕기 전 목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위원 현무 스님, 홍은영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조인숙 다리건축 대표, 박재성 숭실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한홍익 해인사 종무실장이 참여했다.

좌담회에 앞서 성원 스님은 "오늘 좌담회는 경북 산불과 같은 처참한 피해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찰 대응 체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될 고견을 바탕으로 종단은 정부와 협의해 기후 위기 상황에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리기능장도 취득…'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인기

문화사업단, 10일 자격증 수여식
91명 합격 영예… 역대 최다 인원
일화 스님 "정진 노력에 찬사를"

"향적세계에서 처음 사찰음식을 접하고 곧바로 매료돼 대전 영선사에서 법송 스님께 사찰음식을 배웠습니다. 초급부터 전문과정까지 배우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제가 취득했던 어떤 자격증 시험보다 설렜고 뿌듯합니다."

대학에 출강하며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서수연 조리기능장은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에서 자격증 취득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조리기능장은 조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기능인이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실기 합격률이 11% 수준인 조리 분야 최고 자격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서 조리기능장은 "최근 자연주의 음식이 트렌드인데 학교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치면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 "몸을 이롭게 하는 사찰음식을 배우고 한식의 맥을 이어 간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은 조계종이 공인한 유일한 사찰음식 관련 자격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나 사찰음식 특화사찰에서 진행하는 초급·중급·전문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상·하반기 합쳐 총 9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최다 인원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합격자들에게 자격증을 전달한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사찰음식은 생명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수행음식이자 한식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음식문화"라며 "사찰음식 전문조리사가 된 여러분들은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 나아가 사라져 가는 한식의 문화원형을 계승하는 음식 수행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시간 동안 쉼 없이 정진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며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과 행복을 얻기를 기원한다"고 치하했다.

신중일 기자

태고 보우 국사 선양·조명할 학회 창립

12월 13일 충남대 문원강당
출범식 및 제1회 학술대회
'태고 선사상' 집중 조명해



태고 보우 국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학술적으로 집중 조명하는 학회가 창립됐다.

태고불교문화학회는 12월 13일 충남대 문원강당(대덕캠퍼스)에서 학회 출범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태고불교문화학회는 태고종 소속 사찰과 스님들, 불교계 전문 연구자들이 협심해 창립됐으며 태고 보우 국사의 면면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은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다.

'태고 선사의 동아시아 선종사적 위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태고 보우 국사의 선사상의 의미와 그 가치를 집중 조명했다.

김방룡 교수는 '태고 보우의 선사상과 그 위상'을, 김진무 충남대 교수는 '중국 임제종 전승에서 본 태고 보우의 사상적 위상'을, 권동우 원광대 교수는 '태고 보우와 난포 조묘의 선사상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은 '태고 보우의 대승경전 이해와 보살정신'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는 '근현대 불교계의 태고 인식과 종조관'을 소개했다.

태고불교문화학회를 준비해 온 법우 스님(용월사, 문학박사)은 "태고종 소속의 사찰과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귀한 뜻을 모아 학회 창립을 지원했다"면서 "불교학계 학자들과 태고종 소속 인재들이 동참해 불교 학술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학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 및 학술대회 차주상보〉

신중일 기자

올해 겨울방학엔 '내소사 한문학당'으로

내년 1~2월, 세 차례 진행돼

겨울방학을 맞아 한자도 배우고 요가, 명상, 트레킹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는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내소사 한문학당' 특별 템플스테이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소사 한문학당'은 한자자격증 초급 수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 퀴즈 등 놀이형 학습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자 학습 외에도 예절교육, 명상, 요가, 트레킹 등 아이들의 바른 생활 습관과 내면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끈다.

'내소사 한문학당'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자 강의(1~7강) △요가·명상 △108배 염주 만들기 △직소폭포 트레킹 △캠프 파이어 △연등 만들기 △키링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일정은 △2026년 1월7일~10일 △2026년 1월21일~24일 △2026년 2월 5일~8일 세 차례 걸쳐 진행된다. 010-4082-7282

신중일 기자

백용성 조사 유훈 기릴 기념관 개관

장수 죽림정사에 994.8㎡ 규모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백용성 조사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건립됐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이사장 법륜 스님, 이하 사업회)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2월 8일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과 대중불교의 유훈을 기리기 위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은 사업회의 주도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 2022년부터 4개년에 걸쳐 지상 2층, 연면적 994.8㎡ 규모로 건립됐다. 기념관은 백용성 조사의 생애·사상·독립운동 활동을 체계적으로 담은 전시공간과 교육·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용성사상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전파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신 불심 도문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도문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용성사상을 전하기 위한 용성교육관, 용성기념관 불사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용성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와 국가보훈부는 12월 8일 장수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관 개관식 테이프 커팅식. 사진=국가보훈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백용성 스님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는 기념관이 개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백용성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장수 출신의 백용성 스님은 독립운동과 민중계몽운동을 주도한 불교계의 대표 인물로, '대각교(大覺教)운동'을 통해 불교 정화와 대중불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고, 기미독립선언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옥고를 치렀다.

이후 선농일치 및 사원경제 자립운동의 일환으로 만주에 선농당을 설립하고 농장을 마련, 일제의 탄압을 피해 유랑하는 동포들에게 생활 터전을 마련해 줬다.

또 경남 함양에 화과원을 설립해 농장 경영 수익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정부는 그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신중일 기자

성보박물관 관장회의 및 협회 총회 성료

12월 9일 불일문화회관서
우수 학예사 등 시상식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 이하 박물관)과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협회장 서봉 스님, 이하 협회)는 12월 9일 서울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성보박물관 관장 회의와 성보박물관협회 정기총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경 스님(수덕사근역성보관장), 해운 스님(월정사성보박물관장), 법기 스님(동화사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해인사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장) 등 24개 성보박물관 관장 및 학예연구사 등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성보박물관 지원사업 보고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개최된 협회 정기 총회에서는 △성보박물관 운영위원 선출 △성보박물관협회 연수 개최안 재심의 △감사 선출 △2026년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등을 논의했다.

협회 운영위원으로는 진성 스님(선운사성보박물관장)과 법오 스님(무위사성보박물관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홍순욱 학예연구실장(월정사성보박물관)이 선임됐다. 협회 연수는 중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협회관 대상으로 성보박물관 콘텐츠 및 신규 사업 공모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우수성보박물관상 및 우수학예인력상 시상'이 진행됐다.

2025년 우수성보박물관상(총무원장상)은 월정사성보박물관에게 돌아갔다. 우수학예인력상 총무원장상은 김태형 학예연구실장(송광사성보박물관), 김지혜 학예연구실장(수덕사근역성보관), 협회장상은 홍순욱 학예연구실장(월정사성보박물관)이 수상했다.

신중일 기자